

“광주 돌봄요청 ‘이웃사이(2642)’로 전화하세요”

내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돌봄콜’ 신청절차·서류 간소화 ‘7대서비스’ 기존 돌봄 공백 해소 중위소득 85% 이하는 무료 지원

전국 최초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복잡했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긴급인력을 활용해 돌봄공백을 해소한 점이 특징이다. 신청절차를 단일화한 ‘돌봄콜’(1660-2642)은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유용하지만, 여러 부처에 산재된 까닭에 그

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연계해 준다는 장점도 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신청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돌봄콜을 통해 하면 된다.

이용자가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돌봄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소득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준비해 제출해야만 했다. 원천소득증명서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납부내역서 등이 주로 활용된다. 그 과정에서 여

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지만 돌봄콜을 통해 간소화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소득증빙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 이용자의 돌봄상황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매칭해 준다.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혜택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존 돌봄을 연계해주고, 기존 돌봄으로도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광주다움 통합돌봄 7대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7대 서비스는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등이다. 행정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 발생하는 돌봄공백은 신청 즉시 돌봄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긴급돌봄으로 메꾼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이나 재산, 연령,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중위소득 85% 이하이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는 1인가구 176만원, 2인가구 293만원, 3인가구 376만원, 4인가구 459만원 선이다.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층은 연간 150만원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 돌봄비용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연간

60만원이 지원된다. 돌봄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돌봄체계에서는 영유아·장애인·노인에 국한됐었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청·장년 1인가구까지 포함시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서로 돌봄을 통해 지켜진다”며 “광주시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인 책무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며 돌보는 것인 만큼 돌봄의 책임을 개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시민 곁에서 신속하고 따뜻하게 돌보겠다”고 말했다.

박성지 기자 sangji.park@jinilbo.com

프로야구 내일 팡파르 KIA 을 목표는 ‘V12’

개막전 SSG와 원정 2연전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가 4월 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10개 구단이 팀당 144경기, 팀 간 16차전씩 모두 720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이 다.

올해 프로야구는 2연전이 폐지되면서 개막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가 3연전으로 편성됐다. 구단간 홈-원정 경기 편성도 기존 홈, 원정 각각 8경기씩에서 홈 9경기

-원정 7경기 또는 홈 7경기-원정 9경기로 변경됐다. KIA타이거즈는 올해 홈 71경기를 치르고 내년 시즌에는 홈 73경기를 벌인다.

경기 진행 속도도 한층 빨라진다. 이번 시즌부터 감독과 코치는 마운드에 오른 후 25초 안에 덕아웃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30초의 방문시간을 줬다. ‘타석에 들어간 순간부터 최소한 한 발을 타석에 뒀어야 한다’는 타석 이탈 제한 규정도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개막전은 오후 2시부터 인천 문학(KIA타이거즈-SSG랜더스), 잠실(롯데자이언츠-두산 베어스), 고척(한화 이글스-키움 히어로즈), 수원(LG트윈스-KT위즈), 대구(NC다이노스-삼성 라이온즈) 등 5개 구장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지난시즌 정규리그 5위로 4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던 KIA는 올시즌엔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준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8일 앞둔 30일 광주 북구 비엔날레 전시관 3전시실에서 관계자들이 작품 설치를 하고 있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라는 주제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는 내달 7일부터 7월9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등에서 펼쳐진다.

김중국 감독은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올시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가장 높은 곳을 목표로 팬 여러분이 기대하는 곳으로 나아가겠다”며 우승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17년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 우승(V11) 이후 7년 만에 V12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관련기사 14면 최동환 기자

광주사람들 (512/1000)

정 세 희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대리

▶관련기사 16면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